

서초구 반포동



성시경, 발라드 황제에서 예능인으로... 풍류대장 심사위원도 활약 기대

(풍류대장-합헌 소리꾼들의 전쟁)

성시경은 2000년 인터넷 오디션 '뜨악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데뷔 후 2000년 11월 싱글 '내게 오는 길', 2001년 4월 데뷔 앨범인 정규 1집 '처음처럼'을 발매했다. 그는 '내게 오는 길' 발표와 동시에 2001년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듬해 7월에는 성시경의 첫 번째 전성기를 연 명반으로 불리는 정규 2집 'Melodie D'Amour'를 발매했다. 윤종신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던 이 앨범은 타이틀곡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와 후속곡인 '넌 감동이었어' '좋은 텐데'까지 수록된 곡이 폭넓게 인기를 누렸다. 이 무렵

성시경은 신승훈, 이문세 등과 함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발라드 가수로서의 입지를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어 2003년 5월 스페셜 앨범 격인 'Try To Remember'를 발매했다. 이 앨범에는 총 24곡이 수록돼 그의 앨범 중 수록곡이 가장 많은 앨범이다. 이 앨범에 수록된 '희재'가 2003년 개봉한 영화 '국화꽃 향기'의 OST로 쓰이며 인기를 끌었다. 성시경은 같은해 10월 새 소속사에서 정규 3집 'Double Life: The Other Side'를 발매했다. 작곡가 김형석과 작업한 곡이 대부분인 이 앨범에는 '차마' '외워 두세요' '10월에 눈이 내리면' 등의 곡이 수록돼 있다. 2004년에는 리메이크 앨범인 '푸른 밤의 꿈을 발매해 가요계에 리메이크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10월 정규 5집인 'The Ballads'부터는 성시경이 직접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다. 특히 타이틀곡인 '거리에서'가 대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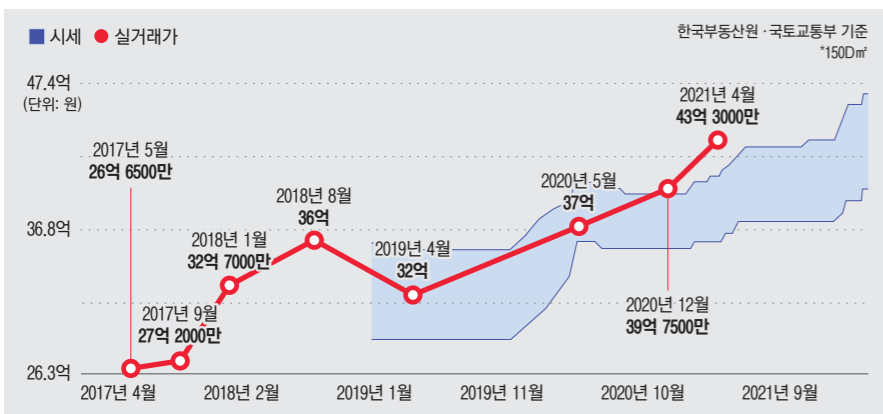
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성시경의 가성 및 기교가 매우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시경은 라디오 MBC FM4U에서 '푸른 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를 진행하면서 라디오 DJ로도 활약했다. 그는 2010년 5월 전역 후 아이유와 함께한 디지털 싱글 '그대네요'를 발매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으며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인 '너는 나의 봄이다'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구미호전' OST인 '비스듬히 너에게', 드라마 '왕이 된 남자' OST인 '니 곁이라면' 등 여러 드라마 OST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2011년 9월 발매한 '처음'을 발매한 성시경은 올해 5월 약 10년 만의 정규 앨범 '스(시웃)'을 발매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앨범에는 사람, 사랑, 삶, 시간, 상처,

선물, 손길, 시선 등 사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단어와 그 의미를 녹여냈다.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KBS2 '1박 2일 시즌2' 멤버로 합류한 데 이어 JTBC '나녀사냥' '비정상회담', MBC '호구의 연애' 등에서 진행을 맡았다. 현재는 KBS2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백종원 클래스',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 KBS Joy '실연박물관' 등에 출연하고 있다. 또 그는 이달 28일 오후 9시 첫방송되는 JTBC '풍류대장-합헌 소리꾼들의 전쟁' (풍류대장)의 심사위원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풍류대장'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국악이 가진 멋과 매력을 선사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전현무가 MC를 맡으며 성시경 외에도 김종진, 이적, 박정현, 2PM의 우영, 마마무의 솔라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이종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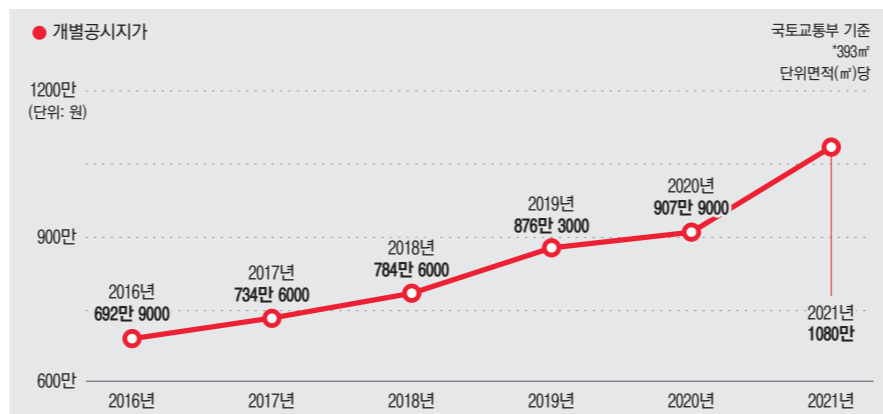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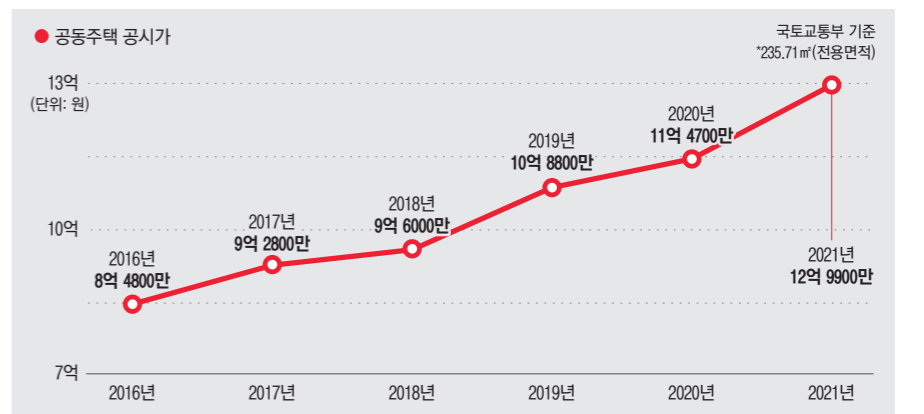
연별당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5



청광아트빌라8차

서울 서초구 반포동 89-1



이광형 헨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광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산업공학 학사·석사 학위,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리옹에서 전산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5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올해 2월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산업 석좌교수로 지냈다. 또 학교에서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교무처장, 국제협력처장,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



외에도 퍼지지능시스템학회장, 한국생물정보학회, 미래학회, 국회사무처 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총장은 1990년대에 김정주(넥스)-김영달(아이디스)-신승우(네오위즈)-김준환(올리브스) 등 3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해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로도 불린다.



김연자

헨가수

김연자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자랑 대회와 가요교실에 나가는 등 노래 연습에 열중했다.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서울로 가서 가수가 되라며 열차표를 직접 끊어줬다. 김연자는 1974년 TBC '전국가요 신인스타쇼'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고 그해 '말을 해줘요'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1981년에는 트로트 메들리 앨범 '노래의 꽃다발'을 발표해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후 일본의 토리요레코드사가 한국 가수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에서 연 오디션에 합격해 1988



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88서울올림픽 찬가로 알려진 '아침의 나라에서'가 인기를 얻으며 성공가도에 올랐다.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김연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10분 내로' '아모르파티' '별링링링' 등 다양한 곡을 발매하고 예능프로그램도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송하경

헨모나미 대표이사 회장

송하경 모나미 대표이사 회장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거쳐 로체스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84년 모나미에 입사해 상무, 전무, 대표이사 부사장을 거쳐 1993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이후 2018년 모나미 회장직에 올랐다. 그는 모나미의 해외 진출과 고급화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또 노사 간 합의를 위해 1박 1년 동안 새벽 5시에 안산 공장을 드나들며 아무런 충돌 없이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압박하던 퇴직금 누진제의 합의를



끌어냈다. 프랑스어로 '내 친구'라는 뜻의 모나미(mon ami)는 창립자이자 송하경 회장의 아버지 송삼석 회장이 1960년 광신화학 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창업해 화학용 문구류를, 이후 '153 볼펜'을 비롯한 필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내 문구 대표업체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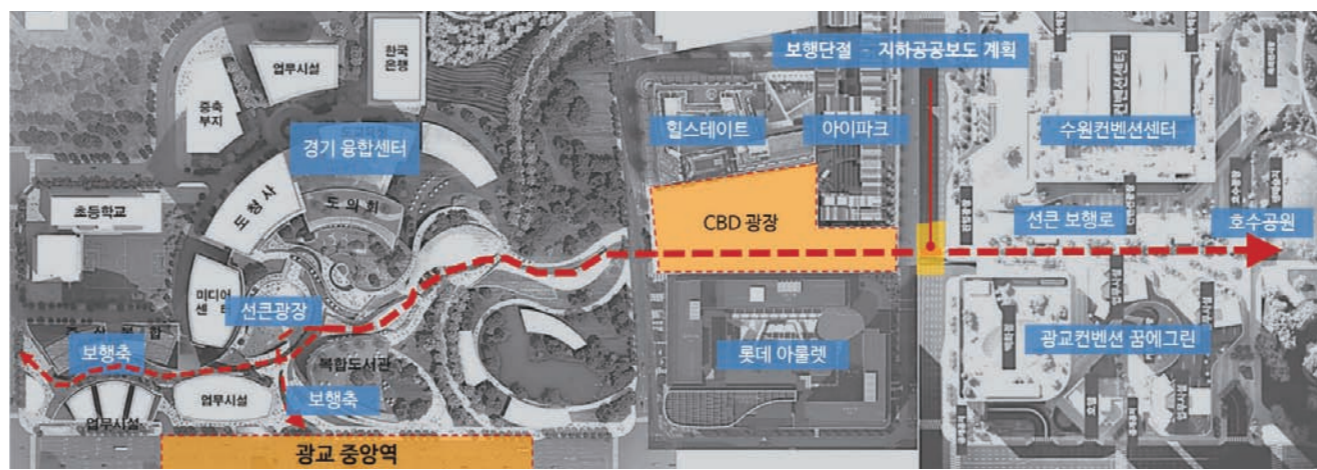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해 내달 발족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에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은 2008년 항만기능이 쇠퇴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항만을 비롯해 철도시설, 노후 도심 개발사업까지 포함되며 복합적인 행정절차로 진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은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시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 대표사로 참여하게 되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추진협의회는 민·관·정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10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주요 기관장, 사업 관련 공무원, 국회의 원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북항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해 내달 발족할 예정이다. 시는 추진협의회를 통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추진력과 시민주도의 공공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자문을 더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협의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협의회는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 기한은 10월 7일까지다. 시 북항재개발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광고중심광장 조성사업 청사진

광고중심광장 조성사업에 청신호... 도시 성장의 기틀 마련 전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는 그동안 담보 상태에 있던 광고중심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 'CBD 및 가도공간 통합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2015년 9월 사업시행자(수원시·경기도·용인시·경기도시주택공사) 간 '경기도 신청사 및 광고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중심업

무지구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기도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사업계획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2월 시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회의를 열어 '중심광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7월 시와 경기도, 경기도시주택공사

공동사업시행자회의를 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지하 보차도로 연결하고 주차장 등을 공유하면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 중심광장이 경기융합타운과 광고교수공원 등을 연결하면 사람과 지역,

경제와 자연이 어울리는 광고 신도시 핵심모델이 될 수 있어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동사업시행자회의에서 "지하 보차도 연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시주택공사는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경제성보다 도시의 인프라, 이용자 편의, 명소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 보차도 연결은 광고개발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중심광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고 롯데아울렛 뒤편에 조성되는 중심광장은 연면적 1만2140㎡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하에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을 연결하는 보차도를, 지상에는 육교를 건설한다. 지하 보차도가 조성되면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융합타운의 주차장 공유 효과로 중심광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습정체 구간인 광고중앙로사거리의 차량정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